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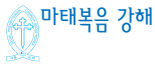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삼가해야 할 누룩들

(마 16:5-12)

본문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가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6절). 제자들은 때마침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먹을 것에 관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지가 며칠이나 지났느냐?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말하는 누룩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왜 그리 깨닫지 못하느냐?”(8-11절)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언급하시면서 저들이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과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꾸짖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약 2:10).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율법으로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이뤄 주신 분이 계시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지신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와 십자가 공로만으로는 안된다고, 할례도 받고, 금식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한 행동들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을 받아 열심을 내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서로를 감시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나”(갈 3:1-2).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는 간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유지해야 하니 종교 행위에 의존하면서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 착각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자신이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종교행위에 빠지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와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성경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깊이 들어가시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Yeast to Guard Against

(Matt. 16:5-12)

In the text, Jesus appeared to the disciples who came to Caesarea Philippi, and they were concerned because they forgot to take bread. “Be careful!” Jesus said to them,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v. 6). Just in time His disciples knew what Jesus said was about bread. However, Jesus reproached His disciples, “Don’t you experience the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How many days have been passed since you experienced the miracle of seven loaves and two fish? While you experienced such power, are you still concerned about bread? Why don’t you understand that the yeast that I talk is not about bread?” (vv. 8-11).

By continually mentioning the Pharisees and Sadducees, Jesus sternly reproached them about obsession of law and habitual religious behavior which is not essentially related with the Gospel.

As “For whoever keeps the whole law and yet stumbles at just one point is guilty of breaking all of it” (James 2:10), the Apostle James said we could not get anything from the law in any case. Nevertheless, there is just a man, Jesus Christ who achieved it for us. That is the cross of which he himself took up the cross on our behalf. Whoever believes the incident of cross will be saved. This is just the Gospel.

The Apostle Paul built a Church in the region of Galatia. He taught people that they should believe only Jesus Christ and live their life. However, false brothers went into the Galatia church and taught them that because it is not enough to depend on the contribution of the cross, if they get circumcision, observe a fast, help people, and do many good thing, people will be saved. By holding only the cross of Jesus Christ, the member of Galatia Church who started and lived their faithful life were enthusiastic about that false teaching were all right for a short while. And there, as time passed, they kept a watch on such actions and condemned each other. The Apostle Paul said this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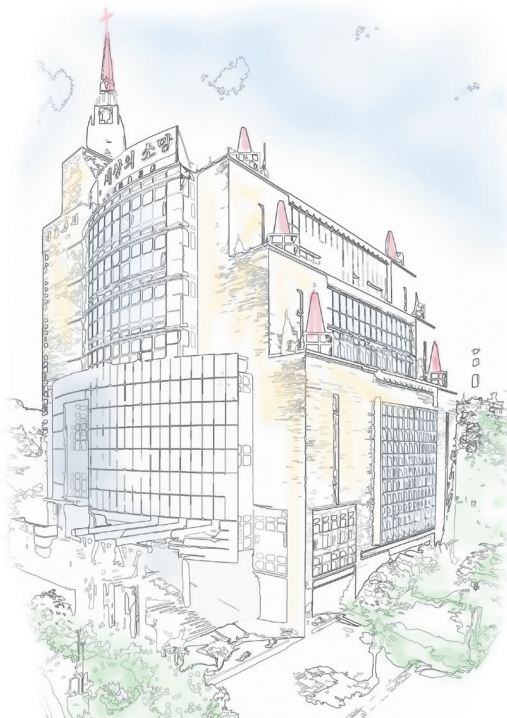
“You foolish Galatians! Who has bewitched you? Before your very eyes Jesus Christ was clearly portrayed, as crucified. I would like to learn just one thing from you: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observing the laws, or by believing what you heard?” (Gal. 3:1-2)

From an unknown time, our life of faith has been changed into the life of religion. And now, the cross on the hill of Calvary was nowhere to be seen. Nevertheless, as we depend on the religious behavior in order to keep the life of faith, we mistake it for our true faith.

Therefore, by looking back our life of faith, we must check whether we give thanks to God before Jesus on the cross, or if we fully appreciate the grace received from God, or if we have the joy of praise and are deeply moved with worship.

My beloved Christians,

From now on, we must be careful of yeast from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You do not have to sink into the habitual deeds of religion and come near before the cross. You have to prove to Jesus who was nailed on the cross and the universe of Go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By the spirit of God’s being deeply moved by your proof,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having a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36학기 서울성경대학 ·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9월 14일(주일) ~ 11월 22일(토요일) (10주간)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 36학기

서울 성경대학과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9월 14일(주일) ~ 11월 22일(토요일) (10주간) 다음과 같이 열린다.

각 과목당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과목 (10주)	에스라	월, 오전 10:00~11:00	서명철 목사	602호
	구약의파노라마+Q.T.	토, 오전 10:30~12:00	장석남 목사	602호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황광 목사	501호	
선교대학	월, 저녁 7:00~8:30	장석남 목사	602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전도학교(12주)	주일, 오후 3:00~4:30	배경애 전도사	506호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40~3:00 (9/14~11/16)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주일, 오후 3:30~4:30 (9/21~10/19)	서준권 목사	609호
수화교실 초급반(16주) 중급반(16주)	주일, 오후 1:00~1:50 (9/14~12/21)	임규현 목사	609호(초급) 603호(중급)
어머니 힐링스쿨	화, 오전 10:30~12:30 (9/16~11/18)	박영준 목사	601호
영.유아 아트&하트(art and heart) 스쿨	목, 오전 10:30~12:30 (9/18~11/27)	구분혜 전도사	701호(어린이) 706호(어머니)
비블리오 바이블(Biblio Bible) 스쿨	토, 오전 10:00~12:00 (9/20~11/29)	양세라 목사	702호(어린이) 601호(어머니)

이웃과 함께하는 2014 사랑의 바자

9월 25일(목)~26일(금), 서울교회

우리교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2014 사랑의 바자(위원장 : 서문석장로)가 9월25일, 26일 양일간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2014 사랑의 바자는 “이웃과 함께하는 2014 사랑의 바자”를 표어로 1)불우이웃 및 탈북난민 돕기 2)동남아 및 아프리카의 생명의 우물과기 3)살리당 후원 및 중앙아시아 선교를 목표로 한다. 또한 바자 시작전부터 진행되는 사랑나눔 A+ 캠페인과 자선바자음악회를 중심으로 9월 한달간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바자를 위한 주요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랑나눔 A+ 운동	사랑의 온도계	8/31(주)~9/21(주) / 1, 2, 8층 모금함
	현물 모으기	8/31(주)~9/21(주) / 104호
	1% 나눔 운동	8/31(주)~9/21(주) / 9/21일 주일헌금시
	10% 절제 운동	8/31(주)~9/21(주) / 9/21일 주일헌금시
교회학교 바자	9/21(주) / 각 교회학교	
자선바자 음악회	9월19일(금) 20:00 / 본당	
사랑의 바자	9월25일(목)~9월26일(금) / 전체 바자회	

8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8월 17일 주일 1,2,3부 예배 시 2014년 네 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 달(격월) 3째주 주일 1,2,3부 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위원회 세례교육부 (607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교/개종/ 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훈 박두순 박정연 배경아 서정희1 안명근 오현정1 윤태웅 이영욱 이상은5 이선민1 조민균 하혜빈 계 : 18명
 • 입교자 : 김영서 강민수 박우현1 조영민 최지혁 계 : 5명
 • 개종자 : 김용남3 문지원1 조은주3 계 : 3명
 • 유아세례자 : 김서은 박시현 신하은1 유지성1 최세린1 최무건 계 : 6명
 총 : 32명

3사단 진중세례식

8월 30일(토) 오후 2시

3사단 진중세례식이 서울교회 비전2020운동본부(부장 : 이갑진 장로) 주관으로 8월 30일(토) 오후 2시에 거행된다. 이 날 설교는 황광 목사가 담당하며 당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 세례자 : 곽승우 김문철 김명진1 김준원 미승완 박정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42)

(문 142) 예레미야27:1-11에 있는 왕은 여호야김인가 아니면 시드기야인가?

(답) 마조라 텍스트에서는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말씀이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고 했습니다. 흠정역(KJV)에서는 ASV와 같이 난하주에 시드기야를 붙이고 있습니다. NASB에서는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본들은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NIV는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초기에’ 그리고 난하주로 몇 개의 히브리어 사본들과 시리아역에 시드기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히브리어 사본들은 여호야김으로 되었음 이라 했습니다. 헬라어 70인역(LXX)에서는 1절 전체가 생략되고 2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도 마조라 텍스트를 수정하여 ‘유다의 시드기야왕을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에 의해 에돔왕, 모압왕, 두로왕, 시돈왕에게 말씀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608년 또는 607년 B.C에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될 수 있을까? 그때는 애굽의 바로인 네코가 팔레스틴을 다스리던 때고(609년에 므깃도에서 승리한 후였음)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서아시아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때가 아닌가? (여호야김 통치 시작보다 3년 후에 칼케미쉬에서 느부갓네살이 승리했음.)

더욱이 이 명령의 실제적 내용은 여호야김에게 보다 시드기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조라 텍스트는 1절의 여호야김으로 읽는 것을 반박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본문 비평학자들은 마조라 텍스트의 전달과정에서 렘26:1 말씀을 27장의 제목으로 생각 없이 베낀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본의 오류에 대한 그럴싸한 설명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27:1은 여호야김 대신 시드기야로 읽는 것이 원문을 바로 읽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제 5기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 접수 및 등록

8월 31일(주) 1부예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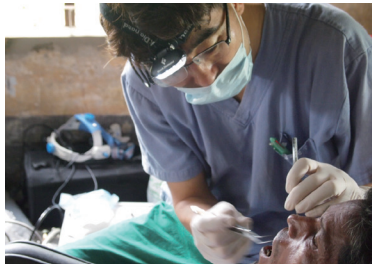
- 성품 주제: 절제 (self-control)
- 모집 인원: 45명
- 접수 장소: 1부 예배 후부터 1층 로비 접수 데스크
- 개강: 9월 20일 토요일



김형상 집사 (단기선교단장)

2월 하순부터 방글라데시 선교단원 모집이 시작되었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3년 전 방글라데시 선교 때 너무나 고생하고 배탈 나고 뎅기열로 입원하고 해서 지원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청년부의 여름수련회와도 겹치고 방글라데시가 여행자제국

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선교 국가를 바꾸는 것까지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3년 전 그렇게 고생했으면서도 다시 5명이 지원하였습니다. 그 후 속속 참가자가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비행기사정으로 인해 몇 명을 거절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매주 준비모임을 통해서 단원들의 영적 무장을 꾀했습니다. 두 선교사님과 이메일로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세밀하게 선교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 하종족마을은 박진영선교사께서 공을 들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차로 8시간을 달려 국경수비대를 통과하여 나룻배로 강을 건너는 험한 지역이고, 더욱이 몇 년 전 이슬람반군이 기독교인을 살해한 인근지역이었습니다. 잠자리와 화장실도 문제였습니다. 단장으로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원들이 동요할까 봐 다카 도착 전까지는 자세한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출발하는 날은 시작이 반이라고 마음은 벌써 끝난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단장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순교하려면 하리라 마음먹고, 출발하는 날 아침 아들과 딸에게 유서를 쓰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20명 이내만 출입 가능하던 국경수비대 검문소는 최근 철거되었으며 강물은 줄어들어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으로 전기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염려했던 지역인데 단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장 은혜스러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동안 모든 단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환경을 감수하고 사역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순간순간 우리 선교단을 공격하였습니다. 힘든 일, 위험한 일이 수없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단원들이 힘든 사역 중에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충만하게 밀려왔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초등학교를 세우는데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으며 1천만 원 남짓한 돈으로 초등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교육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이곳이 선교의 블루오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험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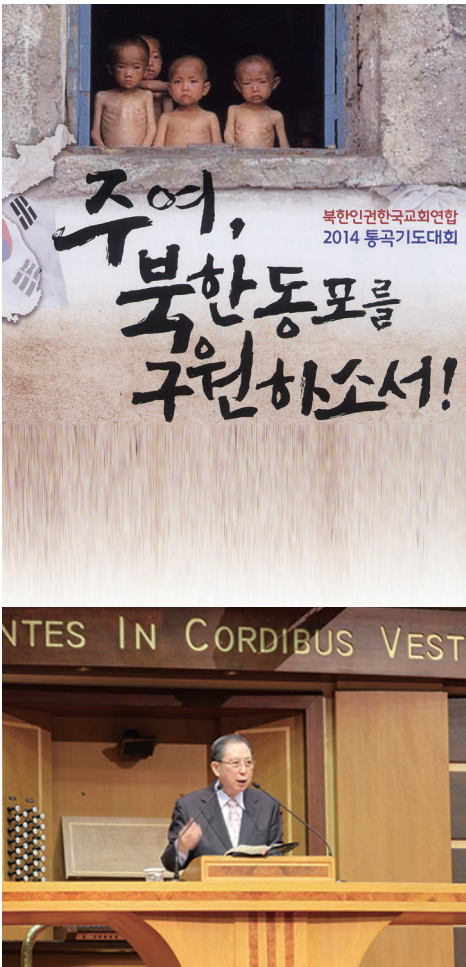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걸어 다니는 어린이들, 침실과 부엌과 거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3평 남짓한 흙집에서 온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은 한국의 50년 전 모습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주여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을 구원한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 불쌍한 이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슬람어인들이 치료를 받으러 와서 목사님의 축복기도에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주님나라가 임하는 날이 머지않

아셨을 직감하였습니다. 이번 단기선교에 참가한 단원들을 바라보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꾸준히 헌신하는 분들로 인하여 우리 서울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습니다. 운영하는 병원을 문 닫거나 임시의사를 고용하고 과감히 단기선교에 동참한 의료팀, 악취로 진동하는 머리를 잘라주면서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는 이미용팀, 주중에도 수시로 모여서 프로그램준비와 율동준비를 하던 어린이팀, 단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세밀하게 준비한 주방팀. 단장으로서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26명의 단원중 단 한 명도 배탈로 고생하거나 말라리아, 뎅기열 등 풍토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상임대표 : 이종윤 목사) 주관 2014 통곡기도대회가 지난 금요일 저녁(8월 22일)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전국의 주요 도시 교회와 전국의 역 광장에서 통일한국을 위한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이번 기도회는 오후 5시부터 시작하여 탈북동포의 현장과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 교회 리더들이 회개와 통일선언을 하며 밤 늦게까지 통곡의 기도가 이어졌다.

이종윤 원로 목사님은 이날 ‘누가 요셉을 위해 울었나?’라는 제하의 설교를 하시며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은 먹고 마시며 요셉을 희롱했다. 이는 실로 잔인한 것이었다. 이것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 주민을 보면서 여전히 먹고 마시며 저들에게 무관심하고 멸시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울부짖는 요셉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분명 북한의 우리 동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의 형유다와 르우벤은 경건한척 동정심이 많은척 했으나 그들의 행동은 위선적이었다. 하나님께서 위선을 모르실리 없다. 누가 북한동포를 위해 기도하고 싸울 것인가! 이 일을 위해 오늘 통곡기도회가 열렸다. 그러나 북한을 위해 울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오늘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나와 한국교회의 무관심과 잔인함과 무책임을 통곡하자. 눈물은 진실의 표현이다. 눈물은 강한 힘을 분출한다”고 북한 주민을 외면하는 한국교회와 북한 주민을 위해 통곡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부디 한국 교회의 통곡기도가 불씨가 되어 독일의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듯 한국의 휴전선이 북음으로 무너지길 간절히 기도한다.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장로 수련회

장로 수련회가 아가페타운에서 8월28일(목) 열린다.

다락방 리더 훈련개강

다락방 리더 훈련이 8월27일(수) 수요일부 예배후 분당에서 개강한다.

동 정

- 이종윤원로목사는 25일(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교운동본부 통합측 지도자 협의회에서 개회설교를 한다.
- 득녀 : 양성모집사 조현숙집사(조정식 장로 김영식 권사 장녀) 8월1일
- 교역자 휴가: 황광 목사(8.26, 28-29) 대행 조원영 목사 배경에 전도사(8.26-28) 대행 장석남 목사
- 주일식당방사 : 이삭선교회 도르가전도회(8.24) 빌립선교회 리브가전도회(8.31)
- 금주의 식사 제공 : 황광 목사 이성혜 성도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남선교회전국연합회전국대회를 마치고

화해와 치유

김규태 집사 (4교구)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창립제90주년전국대회가 8월20일(수)부터 22일까지 흥천대 명비발디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화해와치유, 화평케 하소서" (엡2:14)라는 주제로 열린 전국교회남선교회는 회원3500여명이 참석하여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금년들어 우리 나라에 불어닥친 크고 엄청난 사건들을 접하며 국민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지고 헤어졌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치유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한 교회와 사회, 남한과 북한, 보수와 진보, 남성과 여성, 신세대와 기성세대,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 우

리 민족과 타민족의 화평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교회는 장로, 집사13명(오정수 신용식 최광성 이동만 김규태 이종창 정인주 윤명구 손태현 한인진 은기장 정완진 배홍갑)이 참석하였고 새벽6시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저녁10시까지 초빙강사의 특강과 찬양, 통성기도로 설렘없는 뻘뻘한 일정으로 강행군을 하였지만 모두들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일정을 마치고는 우리교회만 따로 모여 서울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더많은 남선교회회원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여 남선교회 연합회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에 크게 기여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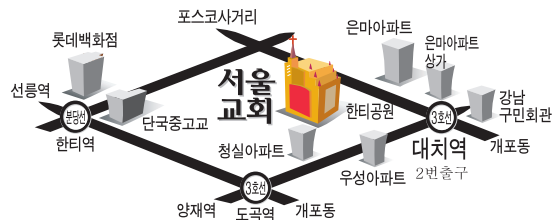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단기선교와 국내선교, 그리고 모든 여성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뿌려진 사랑과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도록
2. 8월 28일에 있는 장로수련회를 통해서 말씀과 사랑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3. 8월 30일에 있는 3사단 진중세례식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고 비전 2020 운동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